

윤병태 나주시장, 세지 화동마을 주민 좌담회

6번째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마을 현안·건의 사항 경청 총 25가구 40명 거주...경관 좋고 귀농하기 좋은 마을 '정평'

가갸호호 꽃을 심어 온 마을을 사계절 꽃동산으로 가꾸어 나주시 세지면 화동마을 주민들이 저녁 시간 모여앉아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

나주시는 전남 세지면 성산리 화동마을회관에서 윤병태 시장과 마을주민들의 6번째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마을 좌담회는 일과 이후 저녁 시간 마을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선 8기 소통 시책이다.

반남면 자미, 노안면 감정, 이장동 정량, 금천면 야죽, 동강면 북통마을에 이어 세지면 화동마을에서 진행된 6번째 마을 좌담회는 대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세지면 소재지 남쪽에 위치한 화동마을은 산세가 수려하고 꽃동산을 이루는 마을이라 해 처음엔 화동(花洞)이라 칭했으나 1912년 현재의 화동(化洞)마을로 개칭된 것으로 전해진다.

총 25가구·4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집과 마을 곳곳에 나무와 꽃을 꾸준히 가꾸

으며 경관이 좋고 귀농하기 좋은 마을로 정평이 나있어 주민들의 자부심이 각별하다.

마을 입구에는 위풍당당하게 쪽 뽕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마을 풍경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석순 마을이장, 최종배 노인회장, 박종명 마을개발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마을 현안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 '마을회관 옹벽 재정비', '빈집 철거', '100원 택시 사용거리 조정 및 마을버스 운행', '회관 앞마당 운동기구 설치', '화초류 추가 지원', '금천(하천) 환경 정화' 등을 윤 시장에게 요청했다.

특히 집집마다 꽃을 가꾸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 마을 홍보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화동마을 꽃 축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병태 시장은 마을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소유 주민의 기부제납에 화답하며 주민 통행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신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했다.

또 담당 직원 현장 파견을 통한 마을회관 건축물 안전성 점검·조치와 더불어 빈집 철거 지원, 운동기구 설치,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 등 주민들의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답했다.

윤병태 시장은 "모든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마을을 가꾸고 서로 도우며 사계절 웃음꽃이 피어나듯 화기애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잘 가꾸진 마을이 모범 귀촌 마을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주민 건의 사항은 단 한 건도 빼놓지 않고 검토해 조치, 개선해가도록 하겠다"며 "본격적인 영농철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며 화동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재봉틀로 전통규방 공예 교육...총 13명 수료

화순군은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 활용 능력배양으로 부가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봉틀을 이용한 규방 교육을 실시하여 총 13명이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17.-4. 14까지 총 5회 교육 일정으로 손바느질로만 할 수 있었던 전통규방공예 작품을 재봉틀로도 가능함을 알게 해 주었다.

규방공예는 조선시대 양반집 규수들이 규방에 모여 손바느질을 통하여 생활소품들에 형태색채 다양한 색감과 재질을 가진 조각을 모아 자유로운 표현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바느질조차 여유 없어 훌륭한 전통규방공예 작품들을 찾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봉틀 전통규방공예는 빠르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 교육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산업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교육생들은 작품 하나하나 완성되어갈 때마다 설렘과 뿌듯함에 대단히 만족하였으며 수업을 대한 열정 또한 뜨거웠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음식점 영업주 정기 위생교육 추진

'성공적인 미식 관광도시를 위한 외식업인의 자세' 교육

담양군은 지난 12일 담빛농업관 3층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존 영업주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주 외식경영 성공 전략을 위해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박형희 이사장을 초빙하여 성공적인 미식 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외식업인의 자세를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해설과 영업주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은 영업 신고 후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담양군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옥과면 주민자치위, 본격 마을가꾸기 활동 실시

곡성군이 지난 12일 옥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 형성프로그램 활동의 일환으로 죽림교에 꽃 화분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옥과면 주민자치위원회 15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죽림교 주변 환경 정화를 실시한 후 페튜니아 꽃 화분을 설치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용두교 인도에도 꽃 화분을 설치해 아름다운 옥과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병식 옥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이 보행이 많은 죽림교에 화분을 설치함으로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돼 뿌듯하다. 쾌적한 옥과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장서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곡성=양혜영 기자

구례군, 주요 사업장 50개소 순회 현장방문

구례군 김순호 군수는 4월 3일부터 11일까지(기간 중 5일) 관내 주요사업장 50개소를 순회하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연초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이후 실제 사업현장에서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4대 권역 개발 계획 및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 점검했고, 아울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도 면밀히 점

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오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자원화 사업, 구례읍 일원 도시재생 사업과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건립 사업, 화양사·지리산온천·지리산정원 등 권역별 체류형 관광 휴양시설 확충 사업,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사업 등 민선8기 역점시책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또한 해빙기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도로·하천·임도 등 관내 주요 기반 시설도 두루 살피고 점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농협 화순군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실시

폐비닐·비료포대·농약병 등

농협 화순군지부(지부장 김종명)는 지난 11일 화순군 이양면 일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협화순군지부, 이양정풍농협, 새마을부녀회, 농가주부모임 등

40명 이상이 참석하여 폐비닐, 비료포대 및 각종 농약병 등을 마을 일대를 돌며 적극적인 수거활동을 펼쳤다.

김종명 지부장은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통해 농촌공간을 더욱 깨끗하게 조성하는데 농협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